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님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FAX: (02)737-0697/8
●PC통신: 인터넷부디피어 http://www.buddhapia.com/mem/ha nmaum

바퀴 중심은 구르지 않고 힘만 배출

15면에서 계속

됩니다. 부처님은 제일 최상승 꼭대기에 올라가셨어도 올라간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왜냐? 맨 아래 지옥에서도 부처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도리를 아신다면 이 세상에서 내가 잘한다고 내세를 게 잊겠습니까?

나는 그전에 그랬습니다. 돌아다보면 너무나 불쌍하고 기가 막힌 일이 많았는데 그 뒤에 또 생각을 하니 '허허,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나온 게 어디 있어? 내가 나온 것도 없고,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가는 것도 없고, 내가 사는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여여하게 물처럼 살고 있는데 내가 했다 해서 애달과 할 일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세요.

그 물이 물처럼 살고 있다고 해서 물이 못하는 게 있습니까? 모두를 먹어 살리고 있고 구멍물이 들어오든 흙물이 들어오든 핏물이 들어오든 고름물이 들어오든 다 한마음으로 한마디로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채찍질을 할 때 여지없이 채찍질을 하고 말입니까? 또 아주 맨 밑바닥의 생물까지 살리기 위해서 한번씩 뒤집기도 하고 말입니다. 한번씩 뒤집어 놔야 생물들이 다 살 수 있거든요. 바다 맨 밑바닥까지는 태양열이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요. 또 뒤집어 놓지 않으면 먹물 거리가 모자라 다 먹고 살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자동적으로 된다는 것. 그래서 물이 여러모로 볼 때 '나 같이만 산다면 근심걱정이 없을텐데' 이럴 겁니다. 산을 보십시오. 산이 저렇게 우뚝 서 있어도 말입니다. 사람들이 죽고 살고 또 죽고 살고 이래도 산은 그대로 묵묵히 내려다 보고 있잖아요.

우리 사는 자체가 마음의 탓이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지 육신으로 수행을 한다면 몸 떨어지면 수행도 떨어지게 되죠. 말을 잘 한다구요? 말 잘하는 것도 몸 떨어지면 입 떨어지고 말도 떨어지는 걸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내 근본에서는 세세생생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든 수레바퀴 같이 돌아가죠. 바퀴가 돌아가는 데는 중심이 있어야겠죠. 중심이 있으면 중심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을 배출하고, 그 힘으로 바퀴는 밖으로 이탈하지 않고 구를 수 있어요. 사람으로 비유한다면 사람의 근본이 바로 저 심봉이요. 그 심봉을 믿고 거기가 다 맡겨 놓아야 모든 것이 돌아가니 사실 말입니다. 안달간다는 언어가 붙지 않죠. 심봉이 끼워져 있으니 바퀴는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 살림살이가 이미 그렇게 돼 있는데 심봉을 믿고 가면 되지 왜 딴 생각을 합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절결 못을 이룰 수 있어야 무난히 돌아가죠. 내가 힘이 없으면 웃음은 커녕 얼굴이 찌푸러지고 한숨이 나오고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번 모두에게 심봉이 있어서 그 힘을 가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전체 바퀴가 굴러가게 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 힘은 어떻게 굴러가든 항상 힘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 나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쓰고, 어떻게 행하고, 또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주머니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질문하십시오. 여러분이 다 나와 더불어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나는 배우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없으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도반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하면서 모든 것을 돌로 보지 않고, 항상 근본 마음지킴이 돌리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보다 잘 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남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또 남이 잘 되면 기뻐하기 보다는 오히려 시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런 점을 알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스님께 여쭙습니다.

내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시기 안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세요. 또 즐거운 마음이 생

기거든 '즐거운 마음을 내게 해서 참 감사해' 하고 놓고요. 그래서 양면을 다 거기가 놓으라고 그랬죠. 이게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나의 근본을 믿으면 스스로 잘되게 이끌어 갑니다. 우리 몸통이는 어찌 보면 로봇과 같습니다. 로봇 있죠? 로봇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그 일을 시키는 사람이나 기계가 따로 있어서 지시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 마음에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몸통이는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게 해서 감사해' 또 어디가 고장이 났다면 '고장이 나게 한 것도 너니까 고쳐서 이고고 가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주 자주 해보면 나중엔 힘이 생기게 돼요. 힘이 생기게 되면 '허허, 내가 괜히 그랬구나. 그렇게 해도 서로 해로운 것도 없는데 괜히 내 생각으로 그렇게 됐구나' 하고 아마 뒤우쳐질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좋아도 거기에 감사하게, 또 나빠도 거기에 '내가 한 거니까 잘되게 하는 것도 너 아니야' 하고 놓으세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 있는데 바로 지금의 컴퓨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되었던 것이 현실에 나오는데 다시 거기가 재입력을 하니까 앞의 입력된 그릇이 비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주 자주 그릇이 비고 또 비고 그러는대로 자주 입력을 하니가 완전히 해말갈게 그릇이 비더라, 그래서 아주 밝게 자기라는 놀이 등장할 하더라 이런 겁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현실에 나오는 것을 팔자운명이라고 하는데, 현실에 나오는 것을 되집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팔자운명이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하고 아프고 그런 것도 알고 보면 모두의 몸 속에 들어있는 인과성·업보성·세간성·영계성·유전성 이 다섯가지가 포함되어서 많으나 적으나 따라 작용이 다를 뿐입니다. 다 가지고 있으면서 업식에 따라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다섯가지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하고 병들어서 죽게 하고 이러는데 원수를 갚으려면

을 내면 그게 믿는 거냐? 라고 물었을 때 있습니다. 돈이란 건 우리 삶에서 떠날 수도 없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것인데 스님께서는 항상 돈조차도 놓으라고 말씀하시니 어디까지가 욕심이고 욕심이 아닌지, 또 그렇다면 세속에서 살면서 돈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벌고 써야 할지, 그리고 서원과 욕심과 탐심은 어떻게 틀린 건지 여쭙습니다.

살아가는데 있어 돈이 없으면 참 궁하고 괴롭고 그렇죠. 그런데 묘

하게 하고 내가 심부름 시키면서 심부름을 하는 놈에게 돈을 안줘서 심부름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심부름 시키는 그놈한테다 탁 말하고 콧방귀 뀌 치라구요. 아! 무슨 격정입니까? 심부름 하는 하인은 주인인 심부름만 하면 그뿐이지 돈이 있고 없고 무슨 그런 걱정을 하느냐 이겁니다. 살릴 할 돈이 없으면 주인이 어려운 일아서 줄까봐 걱정을 합니까. 아, 주인이 주면 하고 주인이 주지 않으면 안하면 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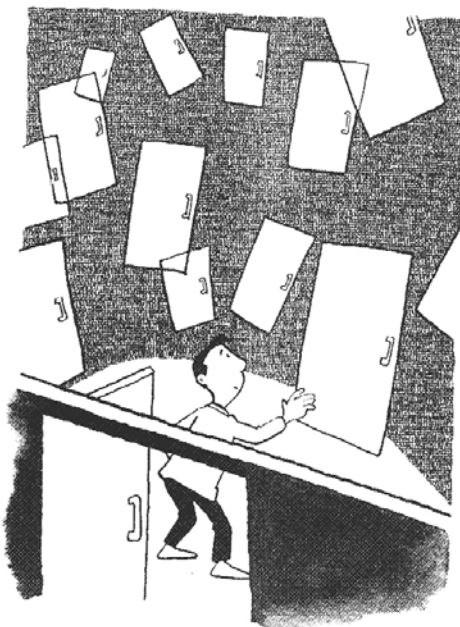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마음이 됐을 때는 그 나무 물결은 잘라 버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매사 일을 자기가 한다고 그렇게 설정이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시더라도 반드시 주인공에 맡겨서 거기에서 모두 하게끔 하십시오. 만약에 소를 한 마리 잡는다고 하더라도 소를 잡지 않으면 안될 때, 주인공에 맡기고 한다면 살생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에게 약이 되고 소의 근본은 바로 무명을 건져서 나한테 집어넣었으니 사람이 된 거죠. 금방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걸러서 대상이 돼서 사람으로 인도.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다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수레에 한번 걸러서 내놓으면 공덕이 된다 소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어렵고 가난하고 무질서하게 살지 마시고 모든 걸 중심을 두고 사신다면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겁니다.

문 아닌 문 어떻게 찾지요

저는 광주지원 청년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큰스님 법문 중에 '문을 찾아 보이는 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으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보면 진리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진리를 찾아 가는 방편 또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한다고 해서 어떤 보이는 걸로만 찾지 말라는 뜻으로 나름대로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문 아닌 문을 찾아야 되는데 또 넘어질 때는 안보이는 걸로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스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 아닌 문을 찾되 문 아닌 문은 어디에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찾는 것이요, 그 문 아닌 문 안에서 내가 도대체 무엇을 찾아야 되는 건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몸통이로서는 문을 꼭 찾아서 들어가야 들어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마음은 말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갈려면 어떻게 나가야 마음이 나가죠? 지금

찰나로 화해 돌아가며 나투는 게 '인간살이' '내가 했다' 세울게 없으니 업 붙을자리 없어

그렇게 해야 겠죠. 자주 그렇게 나오는 것을 거기가 속아서 자주 마음을 그대로 쓰니까 힘들게 죽는 사람도 있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고 힘들어서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팔자운명에 매달리지 말고 그냥 거기가 놓으면 그대로 만사가 태평입니다. 팔자운명이 자주 없어지니까요. 그리고 팔자운명이 없어지고 새 물로다가 입력을 하니까 새 것이 현실에 나오게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겁내지 마시구요 무조건 믿고 '화내는 것도 시기하는 것도 너 아니야. 그러나 그렇게 안하게 하는 것도 너 만이 할 수 있어!' 라고 해도 좋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고 써야 합니까

대우지원에 다니는 신도입니다. 그동안 불교를 공부하는 불자라고 자부해 온 지가 15년이나 되고 나름대로 이것저것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스님을 만나고 이 마음공부를 시작하면서 지난 세월이 다 수박 겉핥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수박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찌꺼기 진짜 맛을 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보니 생활 속에서 체휼되고 또 가정이나 직장생활에서도 평정하 즐겁고 의욕도 생기고 당당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삶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심어주시는 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스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돈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스님 법문을 들으면서 약간 혼돈이 생겼기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때는 내면에서 말하기를 불교를 믿는다는 네가 돈에 욕심

한 법이 있습니다. 돈을 꼭 써야 될 때는 돈이 나오게끔 만드는 방법이 있죠. 남한테 꾸러가지 않고 또 돈을 쌓아놓고 살지 않아요. 내가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면 딱 나오게끔 말입니다. 그런 방법을 몰라서야 어찌 부처님의 길을 따른다고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바가지가 없어서 불편한데 이럴때 벌써 주인은 알고 '어- 바가지가 있어야 내 심부름을 하겠구나' 하고선 바자지를 던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돈이 없다고 했을 때 '이거 참 어렵게야만 돈을 만들어서 쓰나, 어떻게 해야만 이걸 갖나' 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배끼고 떨어다보고는 바깥으로 달아 나가요. 저 집으로 들어갔다가는 그냥 이리저리 찌고 온통 아난나졌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나 사람이나 다 마음이 있어서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한마음이 돼서 그 가운데서 다스리는 주인이 다 하게끔 돼 있어야.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절을 지을 때 말입니다. 돈 한푼 없었죠. 그때는요. 사람들은 자주 모여인데 앓을 데가 없었으니 집이 필요했어요.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저 심시일반으로 돈을 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오래걸지도 않구요. 만약에 내 사사로운 욕심으로 집이 필요했다면 이거 안됐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의 집이기 때문에 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넉넉히 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돈 없다고 돈 생기게 해달라고 원을 한다면 그것은 안되죠. 그러 나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모두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없는 것을 알고 때문에 갖다 줄 거라는 거죠. 내가 형성시켰고 내가 움직여지게 하고, 내가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나중에는 진짜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인도 없고 하인도 없고 진짜 그 가운데 그냥 자기 자유스럽게 되는 거죠.

불을 지피는데 말입니다. 젖은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 마른 나무로 불을 지피느냐에 따라서 불쏘시개가 덜 들어가고 더 들어가고 그러죠. 마른 나무는 불쏘시개를 조금만 해도 타버리는데 젖은 나무는 불쏘시개를 하면 그 불쏘시개만 훑아 버리고는 더 이상 안타죠. 그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으면 야 나무가 말라서 잘 타고, 수행이 어느 정도 돼 있지 않은 아주 젖은 나무라면 안타겠죠. 그러니까 아직도 겁에 매달려서 즉 말하자면 타의에서 구하는 습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줄여서 아예 그냥 진짜로 무조건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훨씬 탈 겁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과거의 습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껏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마음공부도 만나지 못했고, 또 살아오는 과정에서 제대로 되는 일이 한가지도 없었습니다. 이제서 스님 법문을 만나 공부하면서 생각해보니 매사 내가 한다는 생각으로 무조건 일단 보고 달려온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이제부터는 스님 말씀대로 주인공에 맡기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과거의 습이 너무 많습니다. 스님, 큰 가르침 주십시오.

우리가 말입니다. 하다못해 나무를 한그루 자르더라도 목심과 지신과 더불어 보이지 않는 관리인과 한마음이 되어야 그게 아무 탈이 없게 되는 이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나무와 더불어 한

이 자리에서 마음으로 집애를 갔다 와 보세요. 어디로 나가야죠? 지금 마음이 문을 찾아서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나가야 될까요? 난 여기서 저 건너 방에를 벽도 보복도 없이 뭐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나가는데... 건넌방 가는데도 그렇고 지구 전체를 돈다 하더라도 그 사이밖에 안돼요. 또 다른 우주에, 태양에, 또 다른 혹성에 간다 하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한생각 딱 하는 것에는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내 몸 속에서 수능은 입자가 만개에 벽도 없고 보복도 없고 문도 없이 나간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을 두고 '천백 억화신이 나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봤다는 것만 해도 아주 최상의 첨단이죠. 인간이 마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의식을 입자로 내보낼 때는 한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이 무슨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이 이 몸통이 모습이 있는 걸로 족하지 진짜 무슨 일을 할 때는 문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하지는 않죠.

옛날에는 창과 칼과 활을 썼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총, 대포, 심지어 뭐 로켓까지 올라가고 말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외에 또 그것보다 더 광대한 문제를 어디서 가져 옵니까? 빛보다 더 빠르고 한계에 부딪치지 않고 가고 올 수 있는 것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을 찾고 배우려고 하지 마라. 문을 찾고 공부하는 자는 학(學)으로 지식(知識)으로 이론(理論)으로

합친 한마음

로만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마음공부하는 것은 문이 없는 문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도. 그러나 마음은 문을 따로 찾지 않아도 아무데고 문이 된다는 것, 온산찰벽도 문이 된다는 것, 깊은 물도 문이 된다는 것, 허공도 문이 된다는 것, 그냥 어디고 문 안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내 아니되는 게 하나도 없구요. 하다못해 미생물까지도 내 아니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부처라고 이름했고 공덕이라고 이름했죠.

'일산(日傘)의 공덕은 크고 작용도 없이 그렇게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열심히 하세요. 자기 주인공만이 할 수 있다고 믿고 가다 보면 정말 그 주인공에서만 문없는 문을 찾을 수 있어요. 과거 미래를 둘 아니게 마음대로 자유자재 할 수 있는 문은 그 문밖에 없어요.

외모로 여자 분별하는 습 많아요

저는 37세 된 노총각입니다. 마음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여분 여자, 안 예쁜 여자 등 늘 분별이 많아 주위 사

그릇이 비고 또 비고
자꾸 재입력 하면
그릇이 완전히
해말갈게 비워져
아주 밝은 자기가
등장합니다

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나쁜 습 때문에 많은 여자들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 여쭙습니다. 저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 나쁜 버릇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요?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꼭 당신같은 사람만 얻어요. 너무 넘치게 울려다 봐도 안되고 넘치게 내려다 봐도 안됩니다. 분명히 덕의 분수에 맞게 걸맞는 아리따운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주 이쁘지도 않고 아주 못생기지도 않고 마음씨가 알뜰한 사람을 만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마음공부라도 열심히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좋겠죠.

쓰러지는 회사들이 많은데...

요즘 사회적으로 참 힘든 일이 많습니까. 무수한 중소기업들이 쓰러지고 심지어 대기업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봐서 마음이 무척 슬리고 아픈데 그 사람들을 위해 어떤 마음을 내고 관을 해야 될지 가르침 주십시오.

예를 들겠습니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거지를 만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도와주는 것이 세세생생 그 사람을 건지는 길이 되겠습니까? 물론 때로는 먹을 걸 주는 것이 좋을 때도 있고 돈을 주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겠죠.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이 그 모습에서 벗어나길 원한다면 바깥으로는 물질은 들어가게 하되 안으로는 자기 밥 자기기가 지어서 먹게끔 무주상보시로 마음을 내줘야 하겠죠. 그러나 모든 만물이 그 속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했듯이 자주 얻어먹게만 한다면 오히려 습을 보태워서 묶어두는 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뿌리부터 개신시켜서 위해서가 그만 두는 것도 하나의 방편입니다. 가만둬도 잘돼갈 겁니다. 가만둬도 잘돼갈 겁니다 하는 소리는 그 속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는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상대에 따라 불리죠.

항상 어려분과 도반으로서 한자리에 앉아 공부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구도 생명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함께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놓을 줄 아니가 이제 걱정 안해도 되겠습니까. 우주 천지에 직결돼 있는 문제들인만큼 온 우주천지에 여러분 마음과 통성이 되고 있으니 관찰했구나, 부딪치지 않았구나, 광창되지 않았구나, 에너지가 없어서 못살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 한생각 생각이 참 거룩하고 고마운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 있으니 한생각을 잘 내신다면 무슨 격정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합친 한마음